

아름다운 사람의 문화

아름다운사람의문화

<프레스코화>는 중국의 <요재지이(聊齋志異)>에 수록된 '벽화' 이야기를 모티브로 하고 있다. <요재지이>는 중국 작가 포송령(蒲松齡)이 민간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귀신, 도깨비, 신선 등의 기이한 이야기를 묶어 집필한 소설집으로 중국판 '아라비안 나이트'라고 불린다. '벽화'는 오래된 절을 방문한 남자가 벽에 그려진 긴 머리 여인의 모습에 매혹되어 그림 속 세계로 빨려 들어간다는 이야기다.

<요재지이(聊齋志異)>에 수록된 '벽화' 이야기

옛날 옛적에 '주효렴'과 '맹룡담'이라는 두 명의 여행자가 있었다. 그들은 하늘과 땅의 온기를 느끼며 발길 닿는 대로 움직였다. 어느 날, 비와 바람이 거칠게 불어와 그들은 작고 누추한 절에 잠시 몸을 맡기기로 한다. 순수한 눈을 가진 노승이 그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절의 한쪽 벽에는 커다란 벽화가 있었는데, 그 속에는 한 무리의 여인들이 그려져 있었다. 꽃을 고르고 있는 긴 머리 여인이 주효렴의 눈을 사로잡았다. 입에는 열은 미소가 있었고 눈은 반짝였다. 그는 그녀의 모습에 사로잡혀 오랫동안 그림을 바라봤는데 마치 그녀와 한 공간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갑자기, 주효렴은 자신이 더 이상 절 안에 존재하고 있지 않음을 깨닫는다. 하늘은 파랗고 햇살은 뜨거웠으며, 눈 앞에 그림 속의 세상이 펼쳐져 있었다. 새 소리가 들려왔고, 긴 머리 여인이 웃으며 걸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정원이 있는 작은 집에 도착하자 뒤를 돌아 그를 보며 웃었다. 주효렴은 홀린 듯 그녀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고, 둘은 마치 오랫동안 헤어져 있다가 만난 연인들처럼 열정적으로 입맞추고 사랑을 나누었다. 다음 날 아침, 다른 여인들이 집으로 찾아와 그녀의 머리를 올리고 비녀를 꽂아준다. 주효렴은 자신이 긴 머리 여인의 남편이 되었고, 그녀가 자신의 아내가 되었음을 깨닫는다.

갑자기, 밖에서 소란 소리가 들린다. 금빛 갑옷을 입고 쇠사슬을 든 거대한 남자가 여인들을 모아놓고 무서운 목소리로 이렇게 소리쳤다. "여기 만약 인간이 들어온 사실이 있다면 자백하라. 내가 살살이 찾아낼 것이다!" 여인은 새파랗게 질려서 주효렴에게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침대 밑으로 숨으라고 이야기한다.

한편, 그림을 보고 있던 맹룡담은 주효렴이 갑자기 사라졌음을 알게 된다. 맹룡담은 노승에게 주효렴이 어디로 갔는지 물어본다. 노승은 그림 한 권을 손가락으로 두들기며 이렇게 말한다. "주 선생, 왜 이렇게 오랫동안 머물러 있나요? 당신의 친구가 찾고 있어요."

그러자 주효렴이 벽 속에서 나와 그들 앞에 모습을 드러낸다. 그는 부들부들 떨고 있었고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맹룡담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자 주효렴은 이렇게 대답한다. "모르겠어. 침대 밑에 숨어 있었고 천둥 소리를 들었어. 무슨 일이 있는지 보려고 밖으로 나와보니 이곳이었네."

두 여행자는 벽화를 바라본다. 긴 머리 여인은 아직도 그곳에서 꽃을 줍고 있다. 하지만 그녀는 결혼한 여인처럼 머리를 올리고 비녀를 꽂고 있었다. 그녀의 미소는 약간 복잡한 표정으로 바뀌어 있었다. 노승은 그들을 절 밖으로 안내한다. 어느새 비는 그쳤고, 그들은 아무 말 없이 떠난다.

앙졸랭 프렐조카쥬 Angelin Preljocaj



앙졸랭 프렐조카쥬는 20세기 이후 프랑스의 가장 중요한 현대 무용 안무가 중 한 명으로 인정 받는 거장이다. 지난 35년간 50개가 넘는 작품들을 안무한 다작 안무가이지만 여전히 누구보다 독창적이고 세련된 작품을 선보이며 신작을 내놓을 때마다 무용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프렐조카쥬는 1957년 정치적인 이유로 프랑스로 망명한 알바니아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났다. 어린 시절 유도를 배우던 그는 10살이 되기 전 학교의 한 소녀가 보여준 발레리노 루돌프 누레예프(Rudolf Nureyev)의 사진에 매혹되었다. “무엇이 인간의 몸을 이토록 아름답게 보이

게 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진 그는 가족 몰래 유도 대신 발레 수업을 받기 시작했는데, 발레를 배우는 남자 아이는 아무도 없어서 다른 소년들에게 놀림을 받기도 했다.

17살이 된 프렐조카쥬는 학교를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무용을 배운다. 클래식 발레로 무용계에 입문하였지만 파리에서 카린 바에너(Karin Waehner)를 사사하며 현대 무용으로 진로를 바꾼다. 1980년대에는 뉴욕으로 건너가 전설적인 안무가 머스 커닝햄(Merce Cunningham)과 제나 로멧(Zena Rommett) 등을 사사한다. 이후 프랑스로 돌아와 몽펠리에의 도미니크 바구에(Dominique Bagouet) 무용단에서 무용수로 활동했다.

프렐조카쥬는 1984년 몽펠리에 댄스 페스티벌에서 <Aventures coloniales>를 선보이며 처음 안무가로 데뷔하였고, 같은 해 발표한 <Marché noir>가 바뇰레 콩쿠르(Concours de Bagnolet)에서 문화장관상을 수상하면서 명성을 얻기 시작한다.

1984년, 프렐조카쥬는 프랑스 샹피니-쉬르-마른(Champigny-sur-Marne)에서 자신의 무용단 ‘프렐조카쥬 컴퍼니’를 창설하고 본격적인 안무 활동을 시작한다. 이후 발표한 작품들의 예술성을 인정 받아 1989년 지역의 국립안무센터가 되어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된다. 1990년 리오오페라발레단의 위촉을 받아 <로미오와 줄리엣>을, 1994년 파리오페라발레단을 위해 <공원(Le Parc)>을 안무하였고, 이후 무용계 최고 영예 중 하나인 ‘브누아 드라 당스’를 수상하며 더욱 높은 명성을 얻게 된다. 이 외에도 프렐조카쥬는 세계 정상 발레단들의 작품을 다수 안무하였는데, 파리오페라발레단을 위해 <카사노바>, <메데아의 노래>, <싯다르타>를, 바에에른슈타츠오페라발레단을 위해 <불새>를, 뉴욕시티발레단을 위해 <라 스트라바간자>, <Spectral Evidence>를, 볼쇼이발레단을 위해 <그리고, 천년의 평화>를, 라 스칼라 극장을 위해 <Winterreise>를 안무하였다.

1996년 프렐조카주는 엑상프로방스 국립안무센터의 예술감독으로 임명되며 엑상프로방스로 근거지를 옮긴다. 1997년 발표한 <수태고지>는 '베시 어워드'를 수상하였으며, 1998년에는 프랑스 정부로부터 레지옹 도뇌르 슈빌리에(Chevalier de la Légion d'honneur) 훈장을, 2006년에는 공로훈장(Ordre national du Mérite)을 수훈하였다. 2006년부터는 엑상프로방스에 세워진 프랑스 최초의 무용창작센터 파비옹 누아르(Pavillon Noir)에 자신의 무용단과 함께 입성하여 신작 제작 뿐 아니라 지역 예술가와 학생들에게 무용 창작과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프렐조카주 발레단 Ballet Preljocaj



© Jean-Charles Carbonne

프렐조카주 발레단은 앙줄랭 프렐조카주에 의해 1984년 창단되었다. 당시 '프렐조카주 컴퍼니'로 시작한 발레단은 현재 예술감독 겸 상임안무가 앙줄랭 프렐조카주와 26명의 상주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6년부터는 파비옹 누아르에 입주하여 발레단의 상설 연습 및 공연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상주 공연장 외에도 프랑스와 전 세계에서 연간 100일정도 투어 공연을 하고 있다.

프렐조카주 발레단은 다수의 내한 공연 이력을 가지고 있다. 1996년 <퍼레이드>, <장미의 정령>, <결혼식> 등 세 개의 작품을 선보였고, 2003년 <봄의 제전>, <헬리콥터>를 공연하였다. 2012년 <그리고, 천년의 평화>를 공연했고, 2014년에는 세계적인 디자이너 장 폴 고티에와 협업한 <스노우 화이트>가 한국 공연계에 큰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2016년에는 주요 안무작을 모은 <갈라 프렐조카주>를 선보였으며, 2019년 발레단의 최신작 중 하나인 <프레스코화>로 LG아트센터, 부산문화회관, 대전예술의전당을 차례대로 방문한다.

● 안무가 노트



우리를 매혹시키는 그림의 본질에 접근할 수 있는 비밀 통로가 있을까?
프랑수아 1세도 앙부아즈에 있는 자신을 모나리자에게 이끌어 주는 길을 찾아 헤매던 때가 있었을까?
리히텐슈타인의 왕자도 16세기부터 내려오던 오래된 캔버스를 입수했을 때, 그 캔버스를 부지런히 들여다보면 크라나흐의 비너스로 자신의 몸을 순간이동할 수 있을거라고 상상했을까?

유명한 중국 설화에서 영감을 받은 <프레스코화>는 벽에 걸린 그림이 초월적 장소가 되고 실제 존재하는 육체가 그림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다른 차원으로의 여정에 대해 들려준다.

이 그림의 질문은 안무를 위한 조사의 핵심이다. 또한, 우리 존재에 의문을 제기하는 플라톤의 동굴과 그림자 이야기를 떠오르게 한다.

<프레스코화>의 안무는 현실과 표현 사이의 신비로운 관계를 탐구하고, 고정된 이미지와 움직임, 순간성과 지속성, 활력과 부동 사이의 결합을 만들어내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

이 중국 설화를 관통하는 상징은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마주하고 있는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 사이에 대한 질문을 불러일으키며 예술이 현대 사회에서 어떻게 존재할 것인가에 대해 말하고 있다.

언론리뷰

<프레스코화>는 탁월한 팀워크로 이루어진 작품이다. 그 심장에는 물론 앙줄랭 프렐조카주의 춤이 있다. 흥내낼 수 없는 우아한 안무, 본질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효율적인 움직임. 여기에 이 공연을 더욱 완벽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거장 에릭 소이어의 숨막히는 조명, 콘스탄스 귀셋의 무대 디자인, 그리고 무용수들의 피부처럼 그들의 몸과 춤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아제딘 알라이아의 의상이다. 작품에 출연하는 10명의 댄서들 모두 경탄을 불러일으킨다.

<Concertonet> 26 September 2016

앙줄랭 프렐조카주의 <스노우 화이트>처럼 <프레스코화>는 하나의 이야기 실타래를 따라간다. 하지만 이번에 프렐조카주는 자신이 영감 받은 중국 설화의 가벼운 뼈대만 가지고 왔으며 그것이 더 좋은 결과를 이끌어낸 것처럼 보인다. 단 위에 앉은 다섯 명의 발레리나는 머리, 팔, 무릎의 반복적인 움직임으로 멋진 군무를 만들어낸다. 하지만 가장 강렬한 장면은 하얀 옷을 입은 소녀가 자신의 고풍적인 매력을 선보이는 장면이다. 거대한 빈 무대 위에 홀로 선 무용수는 머리카락마저 안무로 보이는 움직임을 통해 자신의 족쇄를 벗어버리고 또 다른 세계로 진입한다. 지루할 틈이 없다.

<Télérama> 21 October 2016

<프레스코화>는 앙줄랭 프렐조카주가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에 얼마나 재능이 있는지를 알려준다 (……) 머리를 늘어뜨린 여자 무용수들의 군무처럼 숨이 멎도록 아름답고, 관능적인 듀엣은 우리를 중국의 아라비안 나이트 속으로 데려간다. 에릭 소이어의 조명은 화려하고, 잘 구성된 메타포는 훌륭한 시적 상상력을 드러낸다.

<La Terrasse> 25 September 2016

앙줄랭 프렐조카주가 만든 이 어둡고도 화려한 작품은 현실과 재현 사이의 관계를 탐구하며 꿈과 현실의 경계에 대한 끝없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작품이다.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다양한 테마를 다루어 왔던 프렐조카주가 이 주제를 숨쉬 있게 다루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공연의 시작부터 우리는 두 여행자들의 움직임에 매료된다. 전체적으로 춤은 꿈같은 낭만과 불안하고 낯선 세계 사이를 움직인다.

<L'Humanité> 31 October 2016

